

나주혁신도시 11개 기관 하반기 노동이사제 도입

일부기관 지난해부터 노사협의 이사회 1명 늘리거나 결원 메울 듯 노조 "환영...민간 확산 마중물 기대"

올해 하반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한 11개 공공기관·공기업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이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되면 혁신도시 본사 인원 7800여 명 중 노동조합원 5000~6000명의 목소리도 함께 실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8월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재부는 전국 131개 공기업·공공기관에 내릴 관련 지침을 작성 중이다.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운법 개정안의 골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될 수 있고,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노동이사로 뽑힐 수 있다. 도입 기관은 개정안 시행 전 노사 합의와 주주 총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하고, 오는 7월경부터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곳은 11곳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한전KPS 등 공기업 3곳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거래소 등 8개 준정부기관이 해당한다.

이들 공공기관 대부분은 기재부 지침이 내려지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입에 앞서 노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는 비상임이사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올해 상반기 중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이사는 2명(1월30일, 4월13일)이다. 한전의 경우 1노조인 전국전력노동조합에만 1만8119명이 가입한 상태다. 준수장형 공기업인 한전KPS의 경우 노동이사

■ 노동이사제 도입 기관별 노조가입 현황 (2~3노조 포함·단위:명)

이전기관	노조원	노조원
한국전력공사	2노조	1만8124
한전KPS(주)	2노조	5272
한국농어촌공사	2노조	5243
한전KDN	단일	260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단일	748
한국인터넷진흥원	3노조	637
한국콘텐츠진흥원	단일	49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단일	413
한국전력거래소	2노조	40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단일	18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노조	51
합계		3만4183

(자료: 기획재정부)

제의 사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근로자 대표 참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견권은 없지만 노조 대표나 노조 추천 소속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석하고의 장 승인시에는 공개 발언도 가능한 조건이다.

한전KPS도 전체 재직자 6700여 명 중 5060여 명이 가입한 과반노조 한전KPS노동조합이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단일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콘텐츠진흥원 지부와 사측은 지난해 3월16일

노사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을 인지하고 관련 논의를 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개정안 시행령과 기재부 지침이 확정되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시행령의 두세 달 전 배포를 목표로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 앞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본보기로,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과 보수 등 세부사항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혁신도시 노조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장재영 인터넷진흥원 노조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대가 절반 정도"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상대적으로 경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금융권 등 민간 기업에 이 제도를 확장하기 위한 마중물로 여겨진다"며 "이사회를 견제할 역할이 한 명 더 생기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노려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하반기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혁신도시 11개 기관 가운데 단일노조를 지닌 곳은 한전KDN,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이다.

이들 11개 기관의 노동조합원(2~3노조 포함)은 모두 3만4183명으로, 가입대상 4만579명의 84.2%를 차지한다. /백희준 기자 bhj@

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aT 23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인턴의 50% 이상을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에 연수비 절반 가량을 지원하는 '2022년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모가 오는 23일까지 진행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청년 구직자와 식품·외식기업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청년 인턴십 참가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인턴십 지원사업은 올해 5년 차를 맞았다. 식품·외식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청년들에게는 현장 실무경험과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지역할당제를 처음 도입하며 총 300여 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미취업 청년 인턴을 채용하면 최장 3개월 동안 연수비 50%가 주어진다. 채용 인턴의 50% 이상이 정규직 전환돼야 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aT FIS(atfis.or.kr)의 모집공고를 확인해 이달 23일 오후 3시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

1.67% 상승...2700선 회복

코스피가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3일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4.48포인트(1.67%) 오른 2707.82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51억원, 500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1348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피 상승은 국내 증시가 휴장했던 설 연휴 기간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이어간 데 영향을 받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주요 인사들이 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1월28일부터 2월2일까지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30%, S&P500지수는 6.07%, 나스닥은 7.97% 올랐다.

다만 메타(옛 페이스북)가 2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 20% 넘게 폭락하고, 이에 따라 이날 나스닥 선물 지수도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코스닥지수는 18.73포인트(2.15%) 오른 891.60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올림픽 마케팅 시들...유통가 '집관족' 잡기

베이징동계올림픽 기간 2주간 TV·간편 먹거리 등 할인행사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 마케팅'이 예전 같지 않지만 유통가는 집에서 경기를 즐기는 '집관족'을 겨냥한 할인전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이마트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을 맞아 프리미엄 TV, 간편 먹거리 중심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도쿄 올림픽 개막일부터 2주 동안 이마트의 TV 매출은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특히 75인치 이상 크기 대형TV 매출은 2배 뛰었다.

이 기간 동안 간편식과 주류 수요도 늘어 생선회(45%), 튀김류(36%), 피코크 냉장편의식(11.1%), 피코크 냉장디저트(25.5%), 맥주(18.6%), 와인(12.4%) 등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이마트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 수요를 겨냥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프리미엄 TV를 연중 최저가 수준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제품을 구매하면 '사운드바'와 애플 TV 석 달 무료 시청권 등을 준다.

행사 기간 내 매주 주말에는 구매 담당자(바이어)가 선정한 인기 TV를 파격가에 판매하는 'TV 잡는 날' 행사도 진행하며, 이마트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대상 상품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제철 딸기 10여 종을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20% 할인 판매한다. 튀김과 구이, 초밥 등 즉석조리식품도 신세계포인트 회원에게 20% 할인 혜택을 준다.

20여 종의 피코크 인기 간편식과 간식도 행사카드 결제 때 20~40% 할인한다.

최준학 이마트 마케팅담당 상무는 "집에서 영화, 스포츠경기를 관람하기 시작하면서 TV를 비롯해 간식거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이마트24도 4일부터 20일까지 캔맥주(500ml)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TV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벌인다.

행사가 펼쳐지는 같은 기간 동안 모든 마른 안주류를 행사카드로 2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을 할인해준다.

이달 말까지는 냉동만두와 대패삼겹살, 냉동 닭가슴살 등을 행사카드로 살 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와인과 안주류, 과자류 등도 한 개 사면 한 개 더주는 '덤 증정'을 펼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세계 스웨덴 생활매장 '라부렛' 입점 3일(주)광주신세계 직원들이 2층에 새로 입점한 스웨덴 생활매장 '라부렛'에서 천연 성분 방향제와 향수, 보습제 등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07.82 (+44.48)
↑ 코스닥	891.60 (+18.73)
↓ 금리(국고채 3년)	2.158 (-0.031)
↑ 환율(USD)	1206.40 (+0.90)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